

늦가을, 초현실주의 랭보의 시를 연주로 만나다

문화예술위 '세종솔로이스츠&이안 보스트리치-뤼미나시옹' 공연 11일 무안 남악 남도소리올림터... 12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영국의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1913-76)은 프랑스 문호 랭보의 미완성 산문 시집에 '일뤼미나시옹'이라는 제목을 붙인 연가곡(連歌曲)시 에 노래를 붙인 가곡을 만들었다.

'채색된 삽화'를 일컫는 '일뤼미나시옹'은 랭보의 초현실적이면서 환상적인 스타일이 브리튼의 약곡에 녹아있다는 예고처럼 다가온다.

이 같은 연가곡에서 모티브를 얻은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1일 남도소리올림터(무안 남악·오후 4시), 12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오후 5시)에서 연이어 선보이는 '세종솔로이스츠&이안 보스트리치-일뤼미나시옹'이 바로 그것.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하는 지방공공 문화공간 우수공연의 일환으로 열리며(사)세종솔로이스츠가 주관한다.

낭만과 우울이 동시에 깃들여 있다는 평을 받는 프랭크 브릿지의 '왈츠 인터메조'가 막을 연다. 바이올린, 첼로 등 현악기의 탄주에 어우러지는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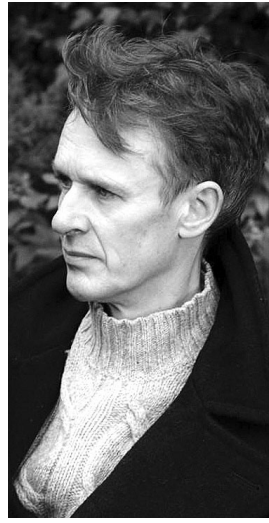
아노 선율이 인상적인 곡.

앤드류 노먼의 '바이올린 8중주를 위한 그란 투리스모'도 들을 수 있다. 레이싱 비디오게임 '그란 투리스모'를 플레이하던 롬메이트에게서 영감을 얻은 작품인데, 여덟 대 현악기를 레이싱하듯 속주한다. 중간마다 단조 음정이 자아내는 불안감은 현실을 벗어난 듯한 느낌을 준다. 바로크와 현대 기법의 극적 만남이 돋보이는 곡.

고전주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하이든 '교향곡 45번 작별'도 울려 퍼진다. 과감한 시도도 이어지는데, 마지막 악장에 이르러서는 '작별'이라는 주제에 맞춰 연주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충격적인 연출을 보여줄 예정이다.

하이라이트는 브리튼의 연가곡 '일뤼미나시옹'이 장식한다. 1940년 초연 이래 브리튼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온 작품이다.

브리튼은 애인이자 그의 음악적 페르소나였던 테너 피터 피어스와 함께 이 작품을 연주하고 녹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음했다. 따라서 테너 곡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일찍이 서울시립교향악단 소프라노 등이 부르면서 음역대에 국한되지 않는 곡의 매력을 보여준 바 있다.

곡의 타이타인은 '팡파레'를 시작으로 불안한 도시들을 호명하는 '도시들' 대목, '문장&고대 양식', '바닷가', '퍼레이드' 등 순이다.

축제가 열리는 마을 바닷가를 걸으며 퍼레이드를 즐기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가 전면에 흐른다.

한편 세종솔로이스츠는 1994년 줄리아드 음대 강호 교수가 한국을 주축으로 8개국 출신의 최정상급 젊은 연주자들을 모아 현악 오케스트라를 창설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동안 카네기홀, 케네디 센터, 파리 샬 가보 등 세계 120개국 이상의 도시에서 600회 넘는 공연을 선보여 왔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는 케임브리지 철학 석사, 옥스퍼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연주, 집필, 강의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카네기홀, 바이에른 슈타츠오페라, 스칼라 극장 등 유수의 공연장은 물론 에든버러, 빈 등에서 리사이틀을 진행했다.

광주예술의전당 모성일 홍보마케팅팀장은 "이안보스트리치는 29세 늦은 나이에 성악가의 길을 걸으며 꾸준히 공쿠르에서 수상한 음악가,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학자이기도 하다"며 "이번 공연에는 특유의 미성숙한 아니라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더해져 수준 높은 공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1만 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 '에펠 드 플루트' 정기연주회 장면.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제공)

'에펠 드 플루트 앙상블' 풍부한 멜로디

1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최고음역의 목관악기 플루트는 고음역, 섬세한 선율로 오케스트라 앙상블에서 한 축이 된다.

플루트를 중심으로 풍부한 멜로디를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이 선보이는 제18회 정기 연주회 '에펠 드 플루트 앙상블'이 그것이며 오는 11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먼저 모차르트 곡 '작은별 주제에 의한 변주'가 막을 연다.

김효근의 '첫사랑'은 장호영 테너가 부르며 푸치니 곡 '공주는 잠 못 이루고'는 오페라 투란도트 원작을 최선욱이 편곡해 선보인다.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특별 출연하는 에펠드주니어앙상블은 영화 사운드트랙 OST '에텔바이스', 김광민 '학교가는 길', 안예은 '문어의 꿈'을 들려준다. 일본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 'Summer'도 울려 퍼진다.

에펠드플루트앙상블도 존 덴버의 '애니 송'을 선시할 예정이다. 대미는 코르사코프 곡 '흑드 온 클래식'과 하얀커피 OST 'B Rossette'가 장식한다.

지휘자 이현경은 전남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에펠노르말 음악원, 생모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 러시아 라흐마니노프 콘서바토리 음악원에서 수학한 뒤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음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조선대 등 외래교수 역임.

조선대 음악교육과, 이탈리아 로마 AIMD 아카데미를 졸업한 협연테너 장호영은 수십 편의 오페라 및 오라토리오에서 기량을 펼쳐 왔다. 앨범 'IL Primo' 등을 발매했으며, 이탈리아 'IL SEMINARIO' 시립음악원에서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에펠드플루트앙상블 김선철 작곡가는 "이번 공연은 대중성 있는 곡과 클래식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플루트 앙상블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세종솔로이스츠

“호남의병 기록발굴·연구활동 확대돼야”

신봉수 역사교사 '불굴의 한말 호남 의병' 강연

한말 의병 활동에 대한 기록발굴과 연구활동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봉수 역사교사는 최근 서구문화원 초청 문화유산 아카데미에서 '불굴의 한말 호남 의병'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한국사의 획을 바꾼 전라도 의병이 전국 60%를 차지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독립유공자가 서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하루빨리 보완하고, 후속 연구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사는 1909년 전라도 의병들은 일본 군경과 교전 횟수는 전남은 31.5%, 전북은 15.7% 등 전라도가 47.2%를 차지한다고 했다. 또한 교전 의병 수는 전국 대비 전남은 45.5%, 전북은 14.5%로 전라도가 60%를 차지하는 등 그 역할이 막대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호남의병 중에는 특히 의병장이 많이 등장한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핵심 인물이었다는 기삼연을 비롯해 일제가 '거괴'로 지목한 김태원과 김을 형제, 전남 제일 의병장 심남

일, 머슴 출신 항일의병장 안규홍 등이 있다.

호남 의병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부족한 자료와 연구 부족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념관이나, 기념물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신 교사는 "더욱이 죽봉대로, 대전로, 서암대로, 설죽로, 금재로 등 익숙한 도로명이 호남 의병장들의 호에서 따온 이름"이라며 "이 도로명들을 재조명하는 일들도 의미있는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 또한 "지역출신 의병 연구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의병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그들을 기리는 기념물에 대한 관리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 작업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카자흐스탄서 구전으로 전해진 옛 이야기

ACC재단, 어린이 그림책 '세 친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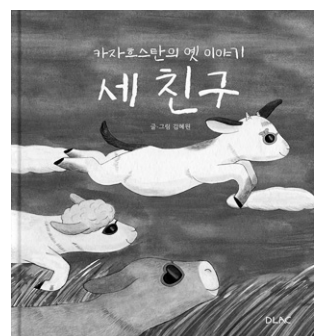
밤이 되면 태양은 어디로 가서 숨을까? 세 친구인 새끼 염소와 아기 양, 송아지는 궁금증을 안고 마침내 태양을 찾아 떠나간다. 카자흐스탄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옛 이야기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어린이 그림책 '세 친구'를 발간했다.

카자흐스탄 옛 이야기를 원작으로 ACC가 창작한 어린이 인형극을 각색했다. 책은 '아기 북극곰의 외출', '빨간 조끼 여우의 장신구 가게', '고양이' 등 다수의 그림책을 출간한 김혜원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김혜원 작가 특유의 부드러운 문체와 감성적인 일러스트가 특징이다. 또한 책 표지는 펼치면 포스터로도 활용 가능하다.

그림책 '세 친구'는 ACC 상품점과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도서 구입 시 세 친구 스티커가 부록으로 제공된다.



손선희 문화유통팀 과장은 "이번 도서는 일반 시민들이 ACC 콘텐츠를 책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발간된 콘텐츠"라며 "특히 팝업북을 비롯해 그림책 등

창의적인 형태로 제작된 어린이 도서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은 오는 12월 팝업북 '숨 쉬는 도시' 출간을 기념하는 '팝업카드 제작 워크숍' 등 도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